

# '따로 또 같이' 상생하는 예술인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꿈꾸는 조합은?”

2013년 9월, 희망적이지만 한편으로 막막한 질문들을 마주했다.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이하 막콧)'의 조합원 모집 공모에 1차 통과를 한 후 기쁜 마음으로 나간 첫 조합원 모임 자리였다. 우리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공동체의 숙명을 진 사람들처럼 비장하게 질문에 답을 해나갔다. '자조'와 '나눔', '화합'이라는 단어들 이 가장 많이 쓰였고 '희망', '주거안정', '창작'이 뒤를 이었다. 그것들은 각자가 간절히 두 손에 쥐고 온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렇게 두근거리던 나날들을 뒤로하고 어느덧 막콧에 산지도 4년째다. 이제는 동네 사람도 사귀고 주변인들에게 협동조합을 권유할 만큼 제법 여유도 생겼지만 돌아보면 참 쉬운 일 이 하나 없었다.

글 김용현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입주작가(tsesz@naver.com)



## 막막했던 예술인 협동조합 1년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협동조합도 처음, 입주자도 처음, 서울시 공무원들도 처음, 예술가도 처음, 처음이 아닌 것 이 없었다. 그만큼 막막하고 어려웠다. 다행이었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협동조합들과는 달리 막 콧은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 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여러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공동체를 이뤄 산다는 것'을 차근차근 학습했고 협동조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곳을 견학했다. 교육이 심 화될수록 예비 조합원들과의 친분이 쌓였고 때로는 격렬

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누군가는 지향하는 삶 의 형태와 다르기도 해서 중간에 입주 자격을 포기하기 도 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막콧이 튼튼한 조합이 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됐다. 하지만 그 중 가장 강력했던 것 은 '갈등'이었다. 그 갈등은 최종 입주자격에 대한 평가조 항이었다. 1년 뒤 최종심사의 여러 기준 중에는 '상호평 가'라는 잣대가 있었다. 함께 살고 싶은 조합원을 5지방 까지 적어 이름이 많이 나온 순으로 점수를 차등하는 것 이다. 이 잣대의 존재를 두고 평가 직전까지 첨예한 논의 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인격을 평가하는 꼴이 되거나 인 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웠다. 결과적으 로 그대로 진행됐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 잣대가 막콧 의 1년을 가장 치열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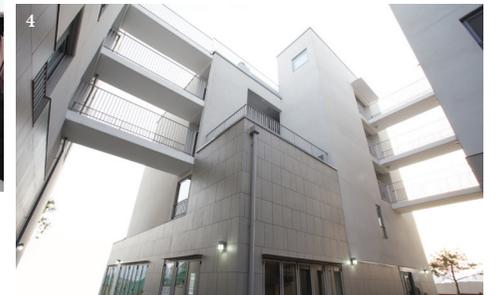
막콧의 다음 과제는 만리동을 알아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건물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 수시로 만리동을 방 문했다. 쫓겨나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예술가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나의 혜택이 상대방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막콧은 입 주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이해관계의 문제를 풀어갔다.

##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막콧)은?

예술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거주공간이다. 서울주택 도시공사가 집을 짓고,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이 주택 관리와 공동체 운영 등을 맡았다. 2013년 입주인 공고를 통해 입주한 예술가는 모두 29세대 70여명이다. 미술, 건축, 연극, 문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 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입주했다.



1 막콧 입주 성악가와 아이들이 함께한 합창공연  
2 막콧의 예술가들이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학생, 마을 주민과 함께 디자이너와 모델이 되어 선보인 '서울의 달, 동네 패션쇼'  
34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예를 들면, 맞닿은 건물과의 사생활 문제는 양쪽 다 적용 되는 문제였기에 대화를 통해 서로 합의의 과정에 도달 했다. 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는 일부 조합원들이 교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 달동네에서 펼치는 문화 예술 활동

2015년 3월, 그렇게 막콧은 만리동에 자리를 잡았다. 어 디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협동조합이 시작됐고 이 시 점에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우리가 가 장 많이 받은 질문은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 실 계획인가요?"였다. 그때마다 대답은 예술인들이 모인 만큼 다 장르 간의 협업이 가능하고, 문화 예술적으로 소 외된 지역에서 행사를 기획하거나 예술교육사업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막콧은 1년 차까지 많은 외부 행사들을 진행했다.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상

한 달동네 판타지'라는 예술축제행사를 기획해 지역사회 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 행사는 막콧 이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 다. 만리동에서 우리는 철저히 굴러온 돌이었다. 그래서 막콧의 예술가들은 지역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의 행 사를 만들기로 했다.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팀을 꾸려 각 자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행했다. 봉제공작장에서 매 일 버려지는 자투리 천으로 재활용 옷 패션쇼를 고안하 고 근처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패션쇼를 만들었다. 또 낡고 고장 난 물건들을 조각가들이 멋지게 수리해주는 공방을 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닫힌 마음 을 열고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구루마를 끌고 동 네를 다니는 '구루부 구루마' 음악공연도 열렸다. 비록 행



2015년 막쿰의 첫 입주주를 기념하는 '만리재로 27길 오프닝 쇼' 공연현장과 준비현장 모습

사 당일 아속하게 쏟아지는 폭우로 진행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이 뜻 깊게 참여하여 완성한 '과정이 아름다운' 행사였다.

폭풍과도 같았던 시기가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막쿰은 매우 지쳐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다시 일이 시작되고 잠을 자러 들어 왔는데 단체문자로 내일 할 일을 이야기했다. 자발적 움직임은 줄어들고 서로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이 생겨났다. 막쿰은 2년차로 접어들면서 외부 활동을 단절했다. 반대로 조합내 소모임을 활성화 하고, 반상회를 통해 조합을 운영하는 방안을 세웠다. 또 주택을 잘 관리해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나름의 교육지책은 막쿰에 전화위복이 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용공간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방과 후 놀이터가 됐다. 예술인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예술 교육을 통해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다. 이 모임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연결되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동된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생겨났다. 직접 로스팅까지 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으로 막쿰은 아침마다 신선한 원두커피를 아주 싼 가격에 마실 수 있다. 비록 작은 단위의 돈의 순환이지만 그것이 선순환 구조가 돼 점점 더 많은 활동과 이윤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4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막쿰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네에 스미고 있는 중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



큼 제법 동네사람이 다 됐다. 그 사이 누구보다도 공동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음악가 '한밤'님네 가족은 근처 낡은 다세대 1층에 마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책방을 열었다. 거기서 음악도 하고 책도 읽고, 작은 모임들도 열린다. 지나가던 학생이 진로 상담을 하고 가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 그곳을 지날 때 마다 첫 만남 첫 질문을 떠올린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❶

INTERVIEW

김은하 막쿰 입주작가

“막쿰은 조용했던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막쿰에 입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막쿰 입주 이전의 저는 마치 떠돌이 같았습니다.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라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안정된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히 막쿰에 대해 알게 됐는데, 그때가 지원 마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막쿰이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족적을 포트폴리오로 만들면서, 단순히 집이 목적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작가라는 아이덴티티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지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1차 합격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후 예비 조합원들끼리 약 1년여 동안 워크숍을 가졌는데, 함께 고민했던 그 기간이 조합의 성격을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어떤 부분이 입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나요.

충정로에 있는 '대안공간 충정각'에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처음 120년 된 유럽식 건축물인 '충정각'을 살리자는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을 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됐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여했고, 지금은 전시나 인터뷰 공간으로 활용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공간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았습니다.

막쿰에서의 생활이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막쿰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집과 작업실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공간에서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인 공간이다 보니 누군가 '나도 그 작품 같이 하고 싶어' 하면 '그래 하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기회가 없었던 길거리 공연, 퍼포먼스 등을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의 폭이 보다 훨씬 다양해졌음을 느낍니다. 막쿰에 거주하며 많은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쿰과 만리동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동네 학교에서 무료 강연을 했던 것이 계기가 돼 현재는 막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미술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많이 받고 교육을 진행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강의합니다. 동네와 아이들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발생적이고 양심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막쿰이 만리동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작가로서 너만의 주제를 찾고, 막쿰에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서로 존중하는 삶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인테리어는 비싼 가구도, 유명한 작가의 손길도 아닌 그 공간에 몸담은 사람들의 손때 묻은 흔적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막쿰에 있는 동안 정성스럽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글 락에하 객원기자